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담당자 제2차장검사 김종근
전화 032-861-5003

보도자료
2020. 8. 20.(목)

제 목

대부중개업주가 중고차매매업주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할부대출제도 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사기 조직 엄단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2020. 8. 20.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훈)는 2020. 8. 18.(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①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중고차할부대출금 약 7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②햇살론 재대출 명목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000만원을 수수한 대부중개업주, 중고차매매업주 등 실제 업주 4명을 적발하여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대부중개업체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뒤 위 대출희망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하여 잠시 보유하면 보유기간 동안 할부금에 더하여 여유자금을 지급해 주고 차량은 되팔아 주겠다. 차량 할부금은 기존 대출과 합하여 대한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중고차 담보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 중 중고차 매입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서로 나누어 이득을 취함
- ※ 대출희망자들은 이미 고리의 대출이 있는 자들로, 중고차 구입시 차량은 일정 기간 후 되팔아 차량 할부금을 해결하고, 2~3백만원의 여유자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리 대출 상품으로 대한대출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제안을 승낙

- ▲ 피고인들은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에 따라 대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자동차매매상이 중고차담보 대출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고, 중고차 대출시 사고전력,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차종 연식만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여 중고차 시세보다 높은 대출을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 ▲ 그 후,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및 자동차매매업체의 상호, 인적사항을 알 길이 없어 법적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원하지 않는 차량을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됨
- ▲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상대방인 대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이 궁박하여 저금리 정부지원 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중도상환하지 못하는 대출희망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 준 뒤 대출희망자가 햇살론 재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에서 비용, 출장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음

1 피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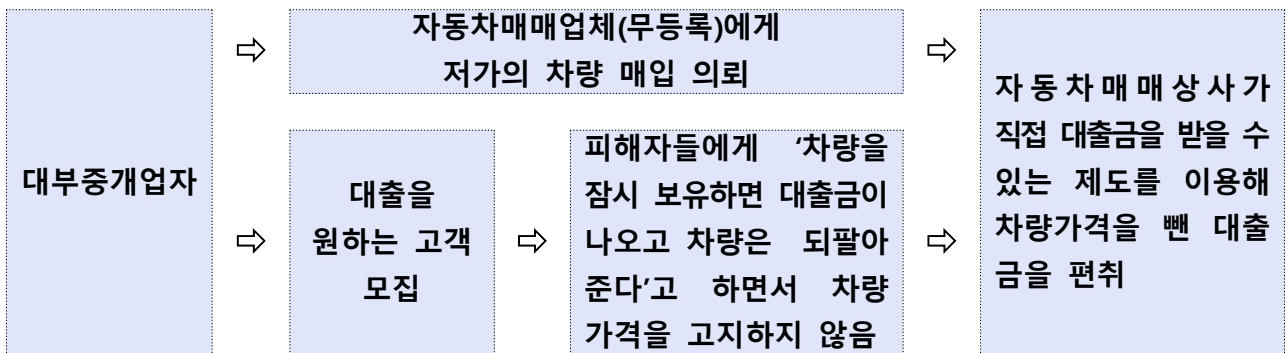
- 대부중개업체 업주 3명
 - A○○[29세, 구속기소], B○○[28세, 구속기소], C○○[30세, 구속기소]
- 자동차매매업체 업주 1명
 - D○○[31세, 구속기소]
- 그 외 대부중개업체 및 자동차딜러 7명

2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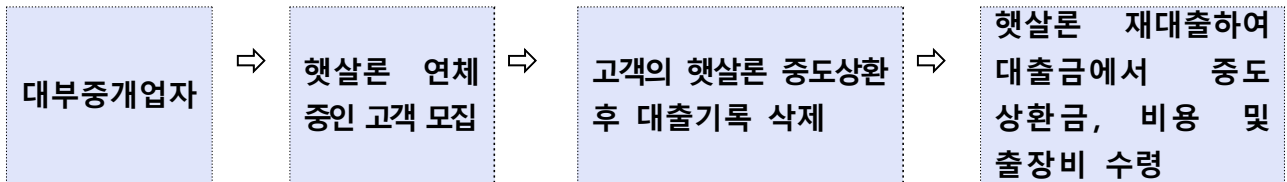
- 2019. 2.~8.경 대부중개업체와 인천 엠파크 자동차매매단지에 소재한 자동차매매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가격을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자동차매매업체가 대출금을 직접 받아 대출금과 자동차 가격과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약 7억 8,000만원 편취[사기]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1.경부터 2020. 6.경 까지 13명의 대출 희망자에게 기존 햇살론 대출의 중도상환금을 먼저 지급 하여 상환해 준 뒤, 추가 재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 중 비용 명목 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받음[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사기 기본 구조]



[대부업법위반 기본 구조]



3 수사경과

- '20. 2. 중고차담보 대출로 2,890만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동차 딜러 등을 고소한 사기사건 송치
- '20. 3.~7.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등으로 실제 업주인 피고인들 적발
사기 피해자 45명 추가 발견, 대부업법위반 추가 입건
- '20. 7.~8. 피고인 4명 구속영장 발부
- '20. 8. 18. 피고인 4명 구속 기소, 피고인 7명 불구속 기소

4

참고사항

- 수사결과, 등록만 하면 영업 가능한 대부중개업체들이 중고차매매업체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45명의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을 함으로써 서민다중의 피해를 가한 것을 밝혀내어 관련자 전원 사법 처리
- 대출희망자는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 대출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 있고,

(예시) 피해자는 널리 알려진 OO저축은행 상담원이라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상담을 진행 하였으나 사실은 OO저축은행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대부중개업체 상담원이었고,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는 OO저축은행과 무관한 회사이므로, 법적 분쟁 발생시 상대방 특정이 곤란 하였음

- 또한,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명목이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희망자는 대출과 관련하여 대가를 요구 받는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예시) 피해자는 널리 알려진 OO저축은행 상담원이라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기존 햇살론 900만원 중 500만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이를 전액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1,000만원으로 햇살론의 재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우리 회사에서 연결된 외부업체가 대출금 잔액을 선납할 테니 재대출이 실행되면 비용 및 출장비 명목으로 270만원 및 선지급한 상환금 500만원을 재대출 금액 1,000만원에서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1,000만원을 대출금 중 770만원(비용 명목 270만원+상환금 500만원)을 지급하여 중개수수료 270만원 수수

※ 대부업법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캐피탈사)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